



27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첫날 오픈전에서 한국의 정영일이 프랑스 대표 토마스와 경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반갑다, 임태훈!

AG대표팀 승선에 윤석민·양현종 반색

광주아시아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과 양현종이 두산 우완 임태훈의 대표팀 합류에 반색하고 있다.

임태훈은 27일 안면 근육마비로 대표팀에서 제외된 '특급 좌완' 김광현을 대신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두산 계투진으로 활약해온 임태훈은 시즌 선발 변신을 시도해 36경기(선발 20경기)에 나와 5.30의 방어율로 9승 11패 1세이브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 허리 통증을 딛고 '부상투혼'을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태훈은 "김광현을 대신해 왼손 투수가 선발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표팀에 합류하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를 대표하고 있는 투수 양현종과 윤석민에게도 임태훈의 '깜짝발탁'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됐다.

임태훈과 양현종은 2006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청소년대표 동기. 이 대회에서 환상의 팀워크를 과시하며 금메달을 따냈던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소문이 자자하다.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각별한 두 친구는 아시아게임 동반 승선을 노렸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민에게도 임태훈의 합류는 반갑기만 하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놓고 본의 아니게 '악연'이 되면서 윤석민에게 임태훈은 마음의 짐이었다.

베이징 올림픽 최종엔트리 발표 당시 임태훈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윤석민은 대표팀에서 탈락했다. 임태훈이



경험이 부족한 2년차 투수였던 것에 반해 윤석민이 팀의 에이스로 맹활약을 하고 있었던 터라 두 사람의 발탁과 탈락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희비가 엇갈렸던 두 사람은 대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규시즌에서 부진했던 임태훈이 대표팀에서 중도 탈락하면서 그 자리에 윤석민이 대체 선수로 선발된 것이다.

임태훈의 나락로 기사화됐던 윤석민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광주 아시아게임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을 때 윤석민이 가장 먼저 찾았던 선수 중 하나가 임태훈이었다.

윤석민은 "태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만큼 아시아게임 명단이 나왔을 때 아쉬움이 컸다"며 "대회 준비를 잘해 태훈에게 꼭 금메달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들의 투혼... '감동 드라마' 시작됐다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첫날 오픈전서 광주출신 김영건 32강행

빛고를 광주에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됐다. '꿈을 향한 실천, 영광을 위한 열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27일 영주체육관에서 공식 경기를 갖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26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광주장애인체육회, 광주장애인탁구협회가 주관한다. 광주를 찾은 46개국 500여명의 선수단은

내달 2일까지 영주체육관과 빛고을체육관에서 오픈전·개인전·단체전 3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2006년 스위스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 3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광주 출신으로는 조재관·김공용·김민규·김영건·김경길 등 5명이 참가했다. 대회 첫날 진행된 오픈전에서는 김영건을 제외한 4명의 선수가 32강에 합류하지 못했다. 오픈전 최종 승자 두 명은 대회 이틀째인 28일 결정된다.

한편 장애인탁구는 장애 정도에 따라 TT(table tennis) 1~10등급으로 구분된다.

TT 1~5등급은 휠체어, TT6~10등급은 스탠딩 등급으로 나뉘며 오픈전은 휠체어와 스탠딩 등급 상관없이 대결을 벌이는 종목이다. 개인전에서는 같은 등급의 선수를끼리 대결을 하게 된다.

남자 단체전은 TT1·2등급과 TT6·7등급이 통합됐고 여자 단체전은 TT1·2·3등급과 TT6·7·8, TT9·10등급자들이 함께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



추신수·김태균·이대호 클린업트리오 AG 대만전 선발 류현진 낙점

락을 마련하고 있다.

조 감독은 27일 야구 대표팀의 훈련 캠프인 부산 사직구장에서 클린업트리오로 포진할 추신수(플리블랜드), 김태균(지바 롯데), 이대호(롯데)의 타순에 대해 "상대 투수가 왼손 투수인지 오른손 투수인지에 따라 타순을 달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타순은 선수 컨디션과 경기 상황에 따라 경기 당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격기계'라고 불리는 강타자 김현수(두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3개 정도의 예비 타순을 마련해 왔다"라며 "상황에 따라 김현수는 클린업트리오 앞이나 뒤에 유동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용규(KIA)나 이종욱(두산) 모두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면서 "중견수는

주전을 못 막지 않고 두 선수를 두루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내달 13일 금메달을 다툰 대만과 B조 예선리그 첫 경기를 펼친다. 대만은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 뛰는 해외파 13명이 버티고 있어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여겨진다.

대만과 13일 경기를 비롯해 4강과 결승전 등 3경기가 금메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다. 대표팀은 이 3경기에 초점을 맞춰 13일 경기와 결승전에는 에이스 류현진이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진 투수 코치는 "대만과 첫 경기에 주요 투수진을 두루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이 첫 경기에서 구위가 좋으면 19일 결승전에 또 나가야 할 것"이라며 "4강과 결



광저우 AG 기수에 핸드볼 간판 윤경신

다음 달 12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막하는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선수들을 선두할 기수에 핸드볼 스타 윤경신(38·두산 베어스)이 선정됐다.

이기흥 한국선수단 단장은 광저우의 주강 하이신샤 섬에서 열리는 아시아게임 개·폐회식 기수에 윤경신을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핸드볼의 간판 스타인 윤경신은 19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부터 6회 연속 아시아게임에 출전한다.

하지만 11월9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선수단 본단을 대표하는 기수로는 배드민턴의 이용대(23·삼성전기)가 뽑혔다.

한국선수단은 또 남자 주장으로 사격의 박명택(45·울산시청), 여자 주장으로는 펜싱의 남현희(30·성남시청)를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윤경신과 함께 아시아게임에 6번째 출전하는 박명택은 그동안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고, 남현희는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 여자 플리레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했다.

역대 최다인 1013명으로 구성된 한국선수단은 8일 오후 3시 태릉선수촌 오토관에서 결단식을 가진 뒤 9일 오전 이기흥 단장을 비롯해 본단이 두 대의 비행기로 나눠 광저우로 출국한다. 11일 오후 2시에는 광저우 선수촌에서 임존식을 갖고 12일 저녁 8시 주강 하이신샤 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